

## 간호대학 신입생의 통합성과 삶의 질 관계

박혜서<sup>1)</sup> · 황경혜<sup>2)</sup> · 조옥희<sup>3)</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삶의 목표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청소년 후기로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 과 학업, 대인관계 형성의 적응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학업과 함께 임상실습을 병행해야 하므로 간호학 전공교과목의 수업, 학교생활, 임상실습, 자기개발과 교우관계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Park & Jang, 2010).

간호대학에 신입생이 입학하여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은 새로운 거주지, 새로운 친구의 환경에 대한 적응과 생명과학, 간호용어 등의 전공 기초과목에 대한 생소한 용어, 방대한 암기 내용으로 난감함과 당황함을 경험하게 된다(Min, 2006). 또한 과중한 학업과 외로움이나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본인이 특별하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느낌으로 기분저하와 우울감을 경험하며(Dzurec, Allchin, & Engler, 2007), 간호대학 신입생은 타 학과의 학생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다(Nerdrum, Rustoen, & Ronnestad, 2009).

통합성은 스트레스원에 대해 개인의 내적자원을 활용하고 조절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인지적 요소인 이해력(comprehensibility),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행동적 요소인 처리능력(manageability), 동기부여적 요소인 의미부여성(meaningfulness)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Antonovsky, 1987). 통합성은 스트레스 수준과 부적인 상관성이 있어 통합성이 낮은 간호대학생은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이는 반면, 통합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Jeon, 2014; Lee & Jun, 2013).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학업과정 중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내적 자원으로 통합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Lee & Jun, 2013)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변화인 전공분야의 학문과 학습능력을 신장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키고 통합해야 하는 시기에 있는 간호대학 신입생에게 스트레스 조절의 주요 내적변수인 통합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삶의 질은 사고하고 암기 학습, 수면과 휴식, 피로, 일상생활 활동, 업무 능력, 여가활동 참여와 경제적인 자원 등이 영향을 미친다(De Silva Bampi, Baraldi, Guilhem, Pompeu, & Campos, 2013). 또한 대학생활의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고, 대인관계와 당면과제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낮았다(Song, 2012). 간호대학 신입생은 타 대학생보다 정서표현은 높았으나 자신의 기분을 모니터링하는 정서주의는 낮은 편으로(Kim & Cha, 2013) 신입생의 23.4%에서 중증 우울을 겪고 있었다. 우울과 불안은 삶의 방향성과 상관성이 있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삶에 대한 비관적인 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Ryu & Choi, 2014). 또한 절망, 불안,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De Silva Bampi et al., 2013). 그러므로 학문적 부담과 환경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

**주요어 :** 간호학생, 통합성, 삶의 질

1)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 수원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hkh@ssc.ac.kr)

3)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투고일: 2015년 1월 5일 수정일: 2015년 5월 15일 게재확정일: 2015년 5월 18일

간호대학생의 통합성은 성공적인 경험과 만족도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통합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은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스트레스원에 대하여 예방적으로 인지하였다(Okumura, Suzuki, Bai, & Mukawa, 2012). 통합성은 정서적인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Darling, McWey, Howard, & Olmstead, 2007), 학습 환경의 사회적 영역에 관여하므로 통합성 수준이 높은 학생은 사회심리적인 기능이 높아질 수 있고 삶의 질이 강화될 수 있다(Ernestine & Russell, 2012). 따라서 새로운 학업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간호대학 신입생에게 통합성과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삶의 질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긍정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간호대학 신입생에 대한 국내연구를 보면, 대학생활적응과 정서 상태(Choi & Lee, 2012; Kim & Cha, 2013), 적응 영향 요인(Yang, Lee, & Park, 2012)에 대한 변수 측정으로 대학생 활적응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간호대학생의 통합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Lee & Jun, 2013)와 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Song, 2012)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간호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 원을 조절하는 통합성과 삶의 질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통합성과 삶의 질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확인하여 신입생의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통합성과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 신입생의 통합성과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 신입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합성과 삶의 질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 신입생의 통합성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통합성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S시와 J시에 소재한 3개의 4년제 간호대학

에 입학 후 10개월이 지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자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훈련받은 연구조사원 1인이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 거부 권리 등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이었고 설문지 응답 시간은 약 3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총 390부를 배부하여 381부가 회수되었으나 그 중 설문지 작성이 불충분한 4부를 제외한 총 377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이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한 상관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효과크기 .30,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이었을 때 최소 356명이 요구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수 377명은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 연구 도구

#### ● 통합성

통합성은 Antonovsky (1987)가 개발한 Sense of coherence (SOC)를 Seo (2002)가 변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9문항으로 이해력(11문항), 처리능력(10문항), 의미부여성(8문항)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내용에 따라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29~20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통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Seo (200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 (.61~.77)이었다.

#### ● 삶의 질

삶의 질은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WHOQOL) group (1998)에서 개발한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WHOQOL-BREF)을 Min, Lee, Kim, Suh와 Kim (2000)이 변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6문항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과 일반적인 건강(2문항), 신체적 건강 영역(7문항), 심리적 건강 영역(6문항), 사회적 관계 영역(3문항), 환경적 영역(8문항)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영역의 점수는 영역 내에 포함된 모든 문항 점수의 평균에 4를 곱하여 계산하고, 부정적 질문에 해당하는 항목은 6점에서 해당 항목 점수를 뺀 값을 해당 점수로 한다. 영역 점수의 범위는 최저 4점에서 최고 20점으로, 총점은 20점에서 100점으로 영역 점수의 합으로 계산한다. Min 등(200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0 (.58~.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 (.55~.80)이었다.

##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9.2 version)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통합성과 삶의 질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합성과 삶의 질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분석하였으며, 이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통합성과 삶의 질 하부영역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CCA)을 이용하였다. 정준상관분석은 2개 이상의 종속변수와 2개 이상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다변량 분석기법으로 하나의 종속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과 달리 각 변수군 내의 변수 사이의 영향력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Lee, 2002).

## 연구 결과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9.41세(18~35세)로, 89.4%가 여학생이었다. 경제 상태는 대상자의 75.6%가 보통 수준이었고, 종교가 없는 경우는 60.5%이었으며, 대상자 중 76.1%가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간호학과 선택 동기로 '취업 전망이 좋아서'라고 답한 경우가 54.1%로 가장 많았으며, '적성에 맞아서' 26.4%, '타인의 권유로' 16.2%, '봉사하고 싶어서' 3.4% 순이었다.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대상자의 50.4%가 '보통이다'라고 하였고,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대상자의 50.9%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는 대상자의 40.3%가 '높다'고 하였다<Table 1>.

### 대상자의 통합성과 삶의 질 수준

통합성 정도는 203점 만점에 평균 120.96점으로, 하부영역 중 이해력 정도는 42.87점, 처리능력 정도는 43.59점, 의미부여성 정도는 34.61점이었었다. 삶의 질 정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64.82점으로, 하부영역 중 신체적 영역이 13.34점으로 가장 높았고, 환경적 영역이 13.04점, 사회관계적 영역 12.98점이었으며, 전반적인 삶의 질 및 일반적인 건강 영역과 심리적 영역은 각각 12.73점이었었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77)

Characteristics	Category	Mean±SD (range) or n (%)
Age (years)	< 20	19.41±2.14 (18~35) 308 (81.7)
	≥ 20	69 (18.3)
Gender	Male	40 (10.6)
	Female	337 (89.4)
Economic status	Good	26 ( 6.9)
	Moderate	285 (75.6)
	Poor	66 (17.5)
Religion	Yes	149 (39.5)
	No	228 (60.5)
Residential area	Renter	44 (11.7)
	Dormitory	46 (12.2)
	Join with family	287 (76.1)
Motivation of administration	Aptitude	99 (26.3)
	Recommendation	61 (16.2)
	Employment quarantee	204 (54.1)
	Nursing service	13 ( 3.4)
Satisfaction on university	Low	71 (18.8)
	Moderate	190 (50.4)
	High	116 (30.8)
Satisfaction on nursing department	Low	35 ( 9.3)
	Moderate	150 (39.8)
	High	192 (50.9)
Daily life stress level	Low	64 (17.0)
	Moderate	161 (42.7)
	High	152 (40.3)

<Table 2> Degrees of Sense of Coherence and Quality of Life

(N=377)

Variables	Possible range	Mean ±SD
Sense of coherence	29 ~ 203	120.96±15.99
Comprehensibility	11 ~ 77	42.87±6.21
Manageability	10 ~ 70	43.59±6.46
Meaningfulness	8 ~ 56	34.61±6.48
Quality of Life	20 ~ 100	64.82±10.89
Overall quality of life and general health	4 ~ 20	12.73±3.12
Physical health domain	4 ~ 20	13.34±2.37
Psychological domain	4 ~ 20	12.73±2.69
Social relationship domain	4 ~ 20	12.98±2.70
Environmental domain	4 ~ 20	13.04±2.45

<Table 3> Sense of Coherence and Quality of Lif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77)

Characteristics	Sense of coherence		Quality of life	
	Mean ±SD	t/F (p)	Mean ±SD	t/F (p)
Age (years)				
< 20	121.20±15.34	0.53	64.89±10.60	0.26
≥ 20	119.90±18.76	(.596)	64.51±12.19	(.798)
Gender				
Male	122.53±17.69	-0.65	68.35±11.98	-2.18
Female	120.77±15.80	(.513)	64.40±10.70	(.030)
Economic status				
Good <sup>a</sup>	126.81±19.43	3.09	72.11±14.80	8.63
Moderate <sup>b</sup>	121.16±16.20	(.047)	64.84±10.05	(<.001)
Poor <sup>c</sup>	117.79±12.82	a>c	61.84±11.42	a>b,c
Religion				
Yes	121.21±16.26	0.25	65.13±10.41	0.45
No	120.79±15.86	(.803)	64.61±11.22	(.655)
Residential area				
Renter	123.43±18.21	0.60	67.18±12.94	1.67
Dormitory	120.78±14.81	(.551)	63.02±11.56	(.190)
Join with family	120.61±15.84		64.74±10.41	
Department select motive				
Suited personality <sup>a</sup>	124.16±16.34	2.05	67.56±12.47	3.38
Other's advice <sup>b</sup>	118.32±16.19	(.106)	65.29±11.46	(.019)
Good job prospect <sup>c</sup>	120.29±15.94		63.41± 9.70	a>c
To nursing service <sup>d</sup>	119.31± 9.81		63.66±10.09	
Satisfaction of school				
Low <sup>a</sup>	117.88±15.96	10.13	61.94±11.07	8.68
Moderate <sup>b</sup>	118.78±14.83	(<.001)	63.89±10.71	(<.001)
High <sup>c</sup>	126.36±16.64	a,b<c	68.08±10.38	a,b<c
Satisfaction of nursing				
Low <sup>a</sup>	116.30±17.68	12.30	62.13±10.64	18.65
Moderate <sup>b</sup>	117.02±14.71	(<.001)	61.33± 9.47	(<.001)
High <sup>c</sup>	124.84±15.77	a,b<c	68.02±11.06	a,b<c
Daily life stress				
Low <sup>a</sup>	132.09±19.10	25.72	73.88±13.50	39.50
Moderate <sup>b</sup>	121.15±13.05	(<.001)	65.04± 8.35	(<.001)
High <sup>c</sup>	116.01±15.06	a>b>c	60.74± 9.69	a>b>c

<sup>a, b, c</sup>.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합성과 삶의 질의 차이

대상자의 통합성은 경제 상태( $p=.047$ ), 학교에 대한 만족도( $p<.001$ ),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 $p<.001$ ), 일상생활 스트레스( $p<.001$ )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경제상태가 여유로운 군이 어려운 군보다,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군이 보통 이하인 군보다,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군이 보통 이하인 군보다,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통합성 정도가 높았다.

삶의 질은 성별( $p=.030$ ), 경제 상태( $p<.001$ ), 간호학과 선택 동기( $p=.019$ ), 학교에 대한 만족도( $p<.001$ ),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 $p<.001$ ), 일상생활 스트레스( $p<.001$ )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제상태가 여유로운 군이 보통 이하인 군보다, 간호학과 선택 동기가 '적성에 맞아서'인 군이 '취업 전망이 좋아서'인 군보다,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군이 보통 이하인 군보다,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군이 보통 이하인 군보다,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높았다<Table 3>.

### 통합성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

통합성과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합성은 삶의 질과 정 상관관계가 있었다( $r=0.67, p<.001$ ). 즉, 통합성이 높을수록, 삶의 질 정도는 높았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Sense of coherence and Quality of Life (N=377)

Variables	Sense of coherence	
	r (p)	
Quality of life	0.67 (<.001)	

대상자의 통합성의 하부영역과 삶의 질 하부영역의 영향력을 고려한 종합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 신입생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중재를 통해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정준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정준상관분석을 한 결과 세 개의 정준함수가 도출되었다. 통계량인 중복지수를 비교하였을 때, 첫 번째 정준함수는 .326으로 변수의 32.6%를 설명하고, Wilks's lambda .412,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첫 번째 정준함수만을 분석, 제시하였다. 유의하게 나타난 기준 변수군과 설명변수군 간의 도출된 정준함수1의 정준상관계수는 .725이었다. 통합성의 3개 하부영역과 삶의 질의 5개 하부영역의 관계를 .30이상의 정준부하량(canonical loading)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통합성에서는 의미부여성(.666)이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처리능력(.596), 이해력(.485) 순이었다. 종속변수인 삶의 질 하부영역에서는 심리적 영역(.690)이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체적 영역(.605), 사회관계적 영역(.526), 환경적 영역(.509), 전반적인 삶의 질 및 일반적인 건강 영역(.501) 순이었다<Table 5>. 즉, 통합성의 하부영역 중 의미부여성, 처리능력, 이해력 순으로 삶의 질과 상관성이 높은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의 하부영역 중 심리적 영역, 신체적 영역, 사회관계적 영역, 환경적 영역, 전반적인 삶의 질 및 일반적인 건강 영역 순으로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Canonical Correlation between Sense of coherence and Quality of Life (N=377)

Variables	CF1
	CL
Independent variables	
Sense of coherence	
Comprehensibility	0.485*
Manageability	0.596*
Meaningfulness	0.666*
Dependent variables	
Quality of Life	
Overall quality of life and general health	0.501*
Physical health domain	0.605*
Psychological domain	0.690*
Social relationship domain	0.526*
Environmental domain	0.509*

Canonical correlation=.725; Canonical root ( $R^2$ )=.572; Redundancy Index=.326; Wilks's lambda=.412;  $p<.001$

CF=canonical function; CL=canonical loading; \*  $CL \geq .30$ .

##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통합성과 삶의 질의 수준과 상관성 및 하부영역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 신입생의 통합성 정도는 평균 120.96점으로, 불안, 우울, 천식, 섭식장애, 불면, 통증 등의 건강문제를 가진 일본대학 신입생의 123.9점(Mikami et al., 2013)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Lee와 Jun (2013)이 보고한 국내 간호대학생 3학년의 130점보다는 낮았다. 이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으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반영하는 통합성이 건강문제가 있는 대학 신입생의 통합성 정도와 유사함을 볼 때, 간호대학 신입생의 신체적, 정서적 측면에 대한 고려와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통합성의 하부영역 중 처리능력 정도는 43.59점, 이해력 정도는 42.87점, 의미부여성 정도는 34.61점이었다. 이는

간호학과 3학년 학생(Lee & Jun, 2013)의 처리능력(48.15점), 이해력 정도(47.63점)보다 약간 낮았으나 의미부여성 정도는 (34.69점) 유사하였다. 또한 폴란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Binkowska & Januszewicz, 2010)의 처리능력 정도(44.7점), 이해력 정도(42.5점), 의미부여성 정도(37.9점)와 유사하였다. 통합성의 하부영역 중 이해력은 인지적 요소로, 처리능력은 도구적/행동적 요소로, 의미부여성은 동기적 요소로서(Eriksson & Lindström, 2005) 간호대학 3학년보다 신입생의 처리능력과 이해력이 낮게 나타난 것은 학습 습관에 대한 지도, 기초학습 능력의 배양과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적인 관계 개선으로 학문적 통합성과 사회적 통합성이 신장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의미부여성이 처리능력과 이해력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올바른 간호관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간호학의 비전을 제시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통합성은 경제상태가 여유로운 군이 어려운 군보다,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군이 보통 이하인 군보다,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군이 보통 이하인 군보다,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통합성 정도가 높았다. 이는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통합성이 높게 나타났고(Lee & Jun, 2013), 직무스트레스와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통합성이 낮았던 선행연구(Kim & Choi, 2011)와 유사하였다. 또한 경제상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를 할 수 없으나 경제상태가 좋은 경우 문제중심대처 정도가 높고 개인정서적응이 높았으며(Park & Lee, 2011), 통합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와 건강정보, 건강관련 행위의 경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Binkowska & Januszewicz, 2010) 경제상태는 통합성 증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 신입생의 삶의 질 정도는 평균 64.82점으로 중등도 수준이었다. 이는 신입생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할 수 없으나 1·4학년의 간호대학생(Song, 2012)의 삶의 질 정도인 66.44점과 대학생의 삶의 질(Park & Kim, 2013) 정도인 평점평균 3.43점(5점 만점), 백점 환산점수 68.6점과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 하부영역 중 신체적 영역이 13.34점(20점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환경적 영역이 13.04점, 사회관계적 영역이 12.87점이었으며, 전반적인 삶의 질 및 일반적인 건강 영역과 심리적 영역은 각각 12.73점이었다. 이는 Song (2012)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일반적인 건강(13.68점), 신체적 영역(13.53점)이 높았고, 심리적 영역(13.08점), 사회적 영역(13.38점)과 환경적 영역(12.75점) 순으로 나타나 신체적 영역이 높은 것은 본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전반적인 삶의 질 및 일반적인 건강 영역과 심리적 영역, 사회관계적 영역에서 간

호대학 신입생의 삶의 질 정도가 낮았다. 또한 브라질의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삶의 질(De Silva Bampi et al., 2013)은 심리적 영역(69.6점)이 가장 높았고, 사회관계적 영역(69.2점), 신체적 영역(65.4점), 환경적 영역(63.3점)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달랐다. 우리나라와 문화적 배경이 달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의 건강상태와 삶의 질은 상관관계가 있으며(Park & Kim, 2013), 학습과 사고, 친구와의 인간관계, 가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요소로(De Silva Bampi et al., 2013)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진행으로 사회적인 지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삶의 질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제상태가 여유로운 군이 보통 이하인 군보다, 간호학과 선택 동기가 ‘적성에 맞아서’인 군이 ‘취업 전망이 좋아서’인 군보다,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군이 보통 이하인 군보다,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군이 보통 이하인 군보다,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경제상태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De Silva Bampi, et al., 2013),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Song, 2012)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 정도가 높게 나타나 본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거나(Park & Kim, 2013)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 연구(Park, 2014)는 본 결과와 달랐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본 연구는 남성 대상자수가 여성에 비해 적고 특정 지역 및 학과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지역의 범위와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반복 측정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라 삶의 질이 높았고 대학생활에 만족하면 생활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하므로(Song, 2012),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여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균형을 이루는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족도, 스트레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통합성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합성이 높을수록 삶의 질 정도는 높았다. 이는 간호사의 통합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Jeon, 2014)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삶의 질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자원이 통합성이며(Ernestine & Russell, 2012), 대학생의 정서적 건강과 가족관계가 통합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Darling et al., 2007) 간호대학 신입생의 기초학습능력과 통찰력을 배양하여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력과 처리능력을 증진시키는 한편 정서적인 지지나 동아리 활동의 참여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실제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통합성과 삶의 질을 정준상관 분석한 결과, 통합성과 삶의 질 모든 하부영역 간에 정적인 상관성이 있어

통합성 중 의미부여성이 가장 상관성이 높았고, 처리능력, 이해력 순으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삶의 질의 하부영역 중 심리적 영역이 가장 상관성이 높았으며, 신체적 영역, 사회관계적 영역, 환경적 영역, 전반적인 삶의 질 및 일반적인 건강 영역 순으로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의 하부영역에 관한 정준상관분석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eon (2014)의 연구에서 통합성 하부영역 중 의미부여성이 가장 상관성이 높았고, 처리능력, 이해력 순으로 삶의 질에 관련성이 나타난 본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터키 간호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에 대한 연구(Yildirim, Kilic, & Durmaz, 2013)에서 삶의 질의 하부영역 중 심리적 영역이 가장 상관관계가 높아 본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통합성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 여학생의 정서적 건강과 삶의 질이 통합성의 52.0%를 설명하였고(Darling et al., 2007), 통합성이 심리적인 측면 건강에서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한 연구(Delgado, 2007)와 일치하여 통합성과 삶의 질의 정적인 상관성을 지지하였다. 즉, 대학생의 심리적인 영역의 삶의 질이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며, 통합성에도 영향을 미치나 통합성의 하부영역별 결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추후 통합성과 삶의 질의 상관성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공에 대한 비전과 가치,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 등의 의미부여성 영역의 통합성을 증진시키는 것과 심리적 영역의 삶의 질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조절과 심리적 건강에 초점을 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통합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통합성과 삶의 질 정도를 확인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 신입생의 통합성과 삶의 질은 경제상태, 학교에 대한 만족도,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 일상생활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간호대학 신입생의 통합성이 높을수록, 삶의 질 정도는 높았다. 그리고 통합성의 하부영역 중 의미부여성, 삶의 질의 하부영역 중 심리적 영역이 삶의 질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 신입생의 일상생활과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조기에 확인하고, 학교 및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고려하며, 기초 학습능력, 의사소통 증진과 멘토링을 통한 사회적인 관계 형성, 스트레스 완화방법의 실제적 훈련을 통해 통합성을 강화하는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통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매개변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 현장에서는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평가 및 회환하는 전략적인 시스템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Antonovsky, A. (1987). *Unraveling the mystery of health: how people manage stress and stay well*. San Francisco: Jossey-Bass.
- Binkowska-Bury M, Januszewicz P. (2010). Sense of coherence and health-related behaviour among university students: A questionnaire survey. *Central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8(3), 145-150.
- Choi, H. J., & Lee, E. (2012).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Fundamental Nursing*, 19(2), 261-268.
- Darling, C. A., McWey, L. M., Howard, S. N., & Olmstead, S. B. (2007). College students stress: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sense of coherence. *Stress and Health*, 23, 215-229.
- Delgado, C. (2004). Sense of coherence, spirituality, stress and quality of life in chronic illnes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9(3), 229-234.
- De Silva Bampi, L. N., Baraldi, S., Guilhem, D., Pompeu, R. B., & Campos ACO. (2013). Nursing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ion of quality of life. *Rev Gaúcha Enferm*, 34(1), 125-132.
- Dzurc, L. C., Allchin, L., & Engler, A. J. (2004). First-year nursing students' accounts of reasons for student depress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6(12), 545-551.
- Eriksson, M., & Lindström, B. (2005). Validity of Antonovsky's sense of coherence scale: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9(6), 460-466. <http://dx.doi.org/10.1136/jech.2003.018085>
- Ernestine, H., C., & Russell, G. Z. (2012). Salutogenic nursing education: A summative review.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3(5), 89-101.
- Jeon, H. A. (2014). *Influence of nurses' burn-out and sense of coherence on quality of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Daejeon.
- Kim, G. M., & Cha, S. K. (2013). Influence of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college student adjustment in freshm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 322-332.
- Kim, K. S., & Choi, S. M. (2011). Influence of nurses' sense of coherence on their stress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4), 493-507.
- Lee E., & Jun W. (2013). Sense of coherence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2), 163-171.
- Mikami, A., Matsushita, M., Adachi, H., Suganuma, N., Koyama, A., Ichimi, N., Ushijima, H., Ikeda, M., Takeda, M., Moriyama, T., Sugita, Y. (2013). Sense of coherence, health problems, and presenteeism in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Asian Journal of Psychiatry*, 6(5), 369-72. <http://dx.doi.org/10.1016/j.ajp.2013.03.008>
- Min, S. K., Lee, C. I., Kim, K. I., Suh, S., Y., & Kim, D. K. (2000).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WHOQOL-BREF).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9(3), 571-579.
- Min, S. Y. (2006). Adjustment experiences of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15(4), 409-419.
- Nerdrum, P., Rustoen, T., & Ronnestad, M. H. (2009).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nursing, physiotherapy and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a longitudinal and predictive study.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3(4), 363-378. <http://dx.doi.org/10.1080/00313830903043133>
- Okumura, R. I., Suzuki, T., Bai, Y., & Mukawa, K. (2012). Stress cop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studies on the influence factor of Sense of Coherence (SOC). *Japan-Hospitals: the journal of the Japan Hospital Association*, 31, 71-79.
- Park, B. S. (2014). *Compared the quality of life of medical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and related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Incheon.
- Park, H. J., & Jang, I. S. (2010).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14-23.
- Park, J. A., & Lee, E. K. (2011).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3), 267-276.
- Park, J. W., & Kim, N. H. (2013).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activity,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1), 153-165.
- Ryu, J., & Choi, N., (2014). The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stress and life orientation, social support, self-evaluation in nursing college freshme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10(9), 93-111.
- Seo, I. S. (2002). *A study on the sense of coherence and compliance in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Song Y. (2012). Stressful life events and quality of lif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71-80.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071>
- The WHOQOL Group. (1998).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WHOQOL): development and general psychometric properties. *Social Science Medicine*, 46, 1569-1585.
- Yang, K. H., Lee, J. R., & Park, B. N. (2012). Factors affecting to school life freshman enrolled in nursing at a junior colleg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5-13.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005>
- Yildirim, Y., Kilic, S. P., & Akyol, A. D. (2013).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in Turkish nursing school students. *Nursing & Health Sciences*, 15(4), 415-422. <http://dx.doi.org/10.1111/nhs.12029>



## Correlation sense of coherence and quality of life among freshman nursing students

Park, Hye-Seo<sup>1)</sup> · Hwang, Kyung-Hye<sup>2)</sup> · Cho, Ok-Hee<sup>3)</sup>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eju Halla University

2)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won Science College

3)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Nursing and Health, Kong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coherence and quality of life in the freshman nursing students.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77 freshmen of nursing colleg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of sense of coherence and quality of life. Data analysis was done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Result:** There was static correlation between sense of coherence and quality of life in the freshman nursing students. And high correlation with quality of life were meaningfulness in sense of coherence and psychological domain in quality of life. **Conclusion:** These results were shown very important to improve meaningfulness in sense of coherence and psychological domain in quality of life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in the freshman nursing student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that focus on stress, and psychological health.

**Key words :** Nursing student, Sense of coherence, Quality of lif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wang, Kyung-Hye

Department of Nursing, Suwon Science College

288, Seja-ro, Jeongnam-myun, Hwaseong-si, Gyeonggi-do, Korea

Tel: 82-31-350-2477 Fax: 82-31-350-2076 E-mail: hkh@ssc.ac.kr